

추사 김정희의 학문·예술·인생

용정리와당 中國 '북조식'

'완당과 완당 바람 - 추사 김정희와...'

4월 11일까지 특별전
동산방·학교재 화랑서



추사 김정희의 초상화

19세기 초반 중국과 한반도를 무대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인생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동산방화랑과 학교재화랑은 특별전 '완당과 완당 바람 - 추사 김정희와 그

의 친구들'을 22일~4월 11일까지 연다. '완당'은 김정희의 호다. 추사로 널리 알려진 김정희는 100개 가량의 호를 가졌다 하는데, 그 가운데 완당은 청나라의 대표적 학자였던 완원(阮元)이 추사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 사 내려준 것이다. 김정희는 30대 이후 완당이라는 호를 가장 즐겨 사용했다. 명시대 유학준 교수의 <완당 평전> (학교재) 발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를

불교에 심취했던 완당은 서산을 교류하며 42년간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초의 선사를 비롯해 해봉 우담 춘허 백파 스님 등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훗날 완당의 예술이 선(禪) 사상으로 이해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초년에는 예산 화엄사에서 지냈고, 중년에 묘향산에 들어갈 때 <금강경>을 호신부로 갖고 갔으며, 노년엔 백파선사와 크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말년에는 봉은사에서 생활하며

박물관·개인소장 서화·서간문 110점
추사 작품 73점 ... 30점은 일반 첫 공개

위해 두 화랑은 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작품과 서간문 110여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는 1976년 탄신 200주년을 맞아 간송미술관과 백암미술원에서 열린 기념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가운데 추사 작품은 '단연죽포서숙(端研竹圃詩書)' '소련학공자(所願學孔子)' 등 73점으로, 이 가운데 30여점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항상 108염주를 지니고 다녔다 한다. 이번 전시에도 완당이 제주도 유배시절 초의스님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서 스님들과의 깊은 인연과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살펴 볼 수 있다. 서울 전시에 이어 영남대박물관(4월 19일~5월 17일), 국립제주박물관(5월 27일~6월 30일), 광주 의재미술관(7월 8일~31일)의 순회전으로 이어진다. (02-733-5877(동산방), 720-1524(학교재))

문화 담당 = 이은자 기자 elee@buddhania.com

조원창 씨 '남조원류' 통설에 이의제기

웅진 천도 이후의 백제 와당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금까지의 통설을 깨고, 북조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는 논문이 나왔다. 와당은 목조 건물의 처마 끝에 쓰이는 막새기이다.

조원창(충주대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씨는 최근 나온 <백제문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집에 발표한 논문 '웅진 천도 후 백제 와당의 중국 남북조 요소 검토'에서 '부여 지역에서 발견되는 백제 와당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꽃잎이 동글거나 끝에 물기가 달려 있는 원형돌기식 연화문이 대부분이지만 부여 용정리 절터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은 그 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

있다. 가운데 부분인 중방이 꽃잎 부분인 화편에 비해 약 15배 가량 크고, 꽃잎과 꽃잎 사이의 간편이 역삼각형이 아니라 많은 마름모형이라는 점, 꽃잎과 외곽을 구분짓는 일종의 테두리인 원권대(圓圈帶)가 없다는 점도 독특하다.



부여 용정리사지에서 출토된 단판 8엽 연화문와당. 중국 북조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양이다'며 "중국 북위의 석굴사원 안에 표현된 연화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표현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조의 영향을 받아 6세기 초 등장한 판단 청동 양식은 6세기 후반부터 남조의 원형돌기식 연화문에 흡수됐으며 서해안에서 출토된 와당에 이르러 북위 양식은 청형(淸形) 남계(南界)라고 조 씨는 덧붙였다.

학술 담당 =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당시 유행하던 남조식과 문양 판이
중국 북위 석굴사원 연화문과 동일

하고 '연꽃 끝이 뾰족한 이런 양식은 중국 북조 문화에 그 원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부여 용정리 절터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의 특징은 우선 꽃잎의 끝이 뾰족한 판단 청형 양식이라는 데

조 씨는 '이러한 특징들은 남조의 영향을 받아 당시 유행했던 판단용기형 또는 원형돌기식 와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



전남 강진 고성사에서 19일 발견된 청동불좌상. 고려 후기인 13~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 후기인 13~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보살좌상이 전남 강진 고성사주지 현주에서 발굴됐다. 위덕대 강진군은 19일 "사찰 경내에 화장실을

새로 짓기 위해 굴착기로 지반 정리를 하던 인부들이 지하 20cm 깊이에서 고려 후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보살좌상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상은 높이 51.5cm(머리 높이 16.8cm) 어깨 폭 27cm 크기로 머리 위 보관과 오른쪽 팔목 아랫부분이 훼손돼 없는 상태

있는데, 고려 시대 반가상은 흔히 알아 묻 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성 씨는 "여래상이 아니라 보살상인 것만큼은 확실하나 보관이 없어 미륵보살상인지 관세음보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문화재청에 보고 후 정

고려 청동불좌상 발굴

강진 고성사서 높이 51cm ... 13~14세기 조성

로 발견됐다. 불상을 본 성춘경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은 "상하 양식면에서 볼 때 고려 후기인 13~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살상은 오른쪽 다리는 구부리고 왼쪽은 가부좌를 뜬 반가상 형식을 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찰 경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약용이 유배됐을 때 1년 동안 머무른 곳으로 알려진 고성사는 지난 88년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절이다.

불교관련 학회지 발간 잇달아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인도철학회가 최근 잇달아 학회지를 발간했다. 지난해 해부터 매년 두 차례 학회지를 내고 있는 이들 학회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맞춰 영문 초록도 함께 실었다. 위덕대 불교문화연구원도 <불교학보> 3집을 최근 내었다.

<불교학 연구> (불교학연구회) 3집은 지난해 학술발표회와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됐던 논문 7편과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의 <성유식론 요의(義義)>의 원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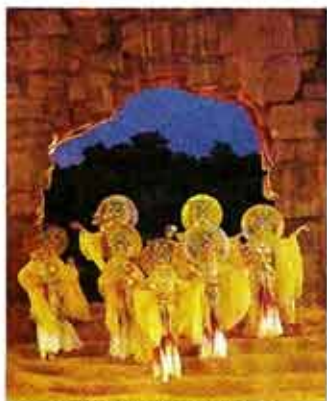
때 발표했던 논문 12편을 모아 <인도철학> 11집 2호(총 12호)를 발간했다. 위덕대 불교문화연구원도 <불교학보> (연간 3집)는 김영덕(위덕대) 교수의 <불교의 한국적 수용의 일례> 등 10편의 논문과 지난해 11월 종조탄생절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김부생(위덕대) 교수의 발표문, 이에 대한 논평문과 답변을 함께 담았다. 2집에 이어 산스크리트 불교탄트라 문헌 목록인 'The List of Sanskrit Buddhist Tantras II' 를 부록으로 실었다.

팔만대장경 소재 연극 두편

고려팔만대장경 29~31일 日서 공연
고려의 아침 5월 24일 올림픽공원

의 전당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팔만대장경의 제작을 통해 국난극복을 염원했던 고려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의지를 그려내고 있다. 뮤지컬 '고려 팔만대장경'은 일반 공연 이후 '영원한 사랑의 강' 부제 세계문화유

산 팔만대장경이라는 제목으로 4월 6일~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월드컵 기념 총체극 '고려의 아침'은 5월 24일~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막을 올린다. '고려의 아침'에서 부각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염원이다. 몽골군 칼끝에 찔려서인 고려 임금과 궁주, 각료들이



총체극 '고려의 아침'의 한 장면. 의 공연은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그 속에 담긴 국난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국내외 관객에게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승명인 서화 도예전 열어
실천불교승가회 10월 기념

실천불교승가회(의장 정화, 이하 실천승가회)가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덕인갤러리에서 '고승 명인 서화



승명명사 '운필암'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나무아미타불'
이름들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평안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 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I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II 아미타불의 본원 III 염불의 궁극 IV 청명염불 수행법 V 관상염불 수행법 VI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본력과 그 능력, 관음근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힘으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천(大天)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지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고리를 푼 뒤 보십시오. 기꺼이 끊어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결심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법참회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십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세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기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